

한국의 금산 인삼제

세계 각국마다 고유의 축제가 있고, 나라안에서도 지방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 축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산」이라고 하는 제 고향에서는 「인삼제」가 열리는데, 한국의 인삼을 대표하는 「고려인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금산인의 축제입니다.

인삼제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은 1981년 10월이었습니다. 그 때는 규모가 작고, 소수의 시민과 학생만이 참가하여 주최하는 금산군청의 행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차제에 금산지역 청년단체가 참가하게 되고, 또, 학교측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규모는 점점 커져 지금은 세계 각국에 홍보물을 보내고, 전국 TV방송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삼제가 개최되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산에는 「진약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강처사」라는 청년과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약초를 구하던 「강처사」에게 산신령님이 인삼씨를 주어서, 그것을 산에 심은 후 1년이 되어, 인삼을 캐어 다려서, 그 약을 먹자 건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그 강처사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제사를 지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삼농사는 금산의 주업이 되어, 인삼은 세계적 명물이 되었습니다.

매년 행해지고 있는 이 축제는, 각종 인삼이 박물관에 전시되고, 무료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과 학생들의 가장행렬과 인삼을 깎는 경기등 많은 행사가 있어, 외국인들도 구경을 하면서 아주 즐거워합니다. 미인선발과 노래자랑, 그리고 청소년 댄스대회, 인삼을 사용한 인삼요리대회등, 일반인이 참가하는 종목도 있어,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5일간 열리는 이 축제는 금산의 인삼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신에게 감사하는 행사입니다. 한국의 금산에 와서, 인생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